



■ 핼 베어벡 감독이 밝히는 대표팀 구상

“배짱있는 유망주 발굴”

베어벡 감독은 이날 오후 K-리그 경기를 지켜본 뒤 8월6일 과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사령탑에 선임된 이후 첫 대표팀 훈련을 지휘하게 된다.

“22세 이하 주의깊게 관찰”

다음은 일문일답.

-네덜란드에서 어떤 구상을 했다.

▲지난 2006독일월드컵에서 치렀던 경기들을 다시 분석했다. 또 월드컵 이전에 치렀던 경기들도 되돌아 봤다.

네덜란드에서 세운 구상을 토대로 코칭스태프 회의를 통해 향후 대표팀 운영방안을 마련할 작정이다.

-세대교체에 대한 감독의 생각은.

▲아시아게임과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1985년생 이후 태어난 선수들에 대한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가능성과 재능을 보이는 선수가 있다면 빠른 시기에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성있는 선수를 많이 지켜보겠다.

-새롭게 발탁할 얼굴이 있다.

▲ 지난 9개월여 동안 K-리그 경기를 지켜보면

서 국내 선수들에 대한 파악을 끝냈다. 나이에 상관 없이 가능성있는 선수에 대해서 코칭스태프와 충분히 상의해 대표팀 발탁 여부를 따지겠다.

-어떤 전술을 쓸 것인가.

▲전술문제는 대표팀 소집훈련이 시작되면 얘기하겠지만 포백이나 스리백 등 특정 숫자에 얽매고 싶지 않다. 대표팀 엔트리에 대해서 대만 원정에 데려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선수를 뽑을 작정이다.

-이번에 소집할 선수들의 윤곽은.

▲유럽 선수들은 8월 중순부터 시즌에 들어가고 J-리그 선수들도 경기 일정이 잡혀있어 선발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포백·스리백에 얽매이지 않겠다”

해외와 선수들이 합류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내와 선수들을 보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차두리나 설기현 등 유럽과 선수들에게는 새 팀에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한다. 대표팀 선발에 대한 윤곽은 머릿속에 있지만 더 지켜본 뒤 발표하겠다.

2006 도하아시안게임과 2007아시안컵대회 우승의 과업을 떠맡은 한국 축구대표팀 핼 베어벡 감독은 어린 유망주 발굴을 통한 한국 축구의 세대교체와 아시안컵 예선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손꼽았다.
베어벡 감독은 26일 오후 네덜란드 휴가를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배짱있고 능력있는 유망주 발굴과 함께 아시안컵 예선을 통과하는 게 당면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게 바로 철벽수비야” 26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신세계 이마트배 2006 여자프로농구 여름리그 챔피언결정전 국민은행 대 삼성생명의 4차전 경기에서 국민은행 신정자(왼쪽)와 김나연이 삼성생명 변연하(가운데)를 밀착마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 공기소총 ‘銀’

한국이 제49회 세계사격선수권 대회 주니어 여자 공기소총에서 은메달을 땀다.

한국은 25일 밤(이하 한국시간)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의 브람촌스키 포토크경기장에서 열린 주니어 여자 10m 공기소총에서 이세나(19·위덕대), 박정예(19·기업은행), 정경숙(16·구정고)이 총점 1천179점을 쏘 중국(1천183점)에 이어 준우승했다.

이세나는 개인전에서도 397점으로 중국의 장위(399점) 다음으로 2위에 올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은 이날까지 주니어 종목에서만 은메달 5개, 동메달 3개를 기록 중이다.

이형택 단식 2회전 진출

한국 남자테니스의 희망 이형택(세계랭킹 98위·삼성증권)이 총상금 5만달러가 걸린 팔린지금대회 피프스서드뱅크 클래식 단식 2회전에 올랐다.

이번 대회 톱시드를 받고 출전한 이형택은 26일(한국시간) 미국 캔터키주 렉싱턴에서 벌어진 1회전에서 한참 아래인 미국의 매튜 버먼(596위)을 2-0(6-3, 6-1)으로 가볍게 물리치고 2회전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 우승자는 상금으로 7천200달러를 받고 남자프로테니스(ATP) 랭킹 유지에 필요한 우승 포인트 60점을 얻는다.

국민은행-삼성생명 ‘막판 승부’

여자프로농구 챔피언전 2승2패

여자프로농구 천안 국민은행이 챔피언결정전을 5차전까지 끌고 갔다.

국민은행은 26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신세계이마트배 2006 여름리그 챔피언결정전(5전3선승제) 4차전에서 용인 삼성생명을 61-58로 따돌렸다.

이로써 국민은행은 두 경기를 내리 잃고 2연승, 27일 오후 2시 최종 5차전을 갖는다.

초반부터 정선민의 득점이 폭발한 국민은행은 야투와 리바운드에서 삼성 생명을 압도했다.

정선민은 1쿼터에 12점을 쏟아 담아 19-10으로 주

도권을 잡는데 한 몫을 했고 22-17로 쫓기던 2쿼터 종료 6분34초전에는 시원한 3점슛까지 꽂아 넣었다.

정선민의 분전에 힘을 얻은 국민은행은 3쿼터 들어 52-32로 멀찌감치 달아났으나 삼성생명도 쉽게 물러서진 않았다.

삼성생명은 4쿼터에 종료 3분4초전 박정은의 3점슛으로 55-55, 동점을 만들었고 종료 직전 59-58로 1점차까지 따라 붙었다.

승부가 갈린 것은 종료 3초전. 공격권을 가진 삼성생명 박정은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빼아픈 턴오버를 했고 공을 가로챈 스테파노바가 레이업을 성공, 승리를 마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7일(목)

▲메이저리그(뉴욕Y-텍사스)(08 : 55·Xports)

▲제58회 화랑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12 : 30·KBS SKY SPORTS)

▲여자프로농구 여름리그 챔피언결정전 5차전(13 : 50·MBC)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히로시마)(17 : 50·SBS스포츠)

▲프로야구(삼성-KIA)(18 : 30·MBC ESPN) 28일(금)

▲PGA 투어 U.S. 벅크 챔피언십 1R(05 : 00·SBS스포츠)

1억 절고, 점쟁이와 내기 한 사연!

사연: 1억 절고, 점쟁이와 내기 한 사연! (Story of a man who lost 100 million and bet with a fortune teller)

060-700-3658

진미령 아무진 꽃계장!

넉넉한 사람만 만드셔도 맛있는 그 맛! 40만세프 판매기념, 최초구성에 7마리 추가

080-440-8080